

보도해명자료

(‘12. 8. 6)

수신 : 지식경제부 등록기자

제목 : ‘외자유치 급급한 지경부·지자체도 추진에 한몫’
(‘12. 8. 6, 경향신문)

1. 기사내용

- ‘복합리조트(외국인전용 카지노 포함) 사전심사제’ 도입 관련
부실업체의 사업 참여 등을 우려하면서,
 - 주요내용으로 ‘사전심사제 줄속 도입’, “사전심사제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제도”라고 보도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지식경제부 입장

- 우리 부는 426일 사전심사제를 도입하기로 정부 방침이 확정된 후
관계부처인 문화부와 함께 민관합동 T/F를 구성*하여 2개월간
구체적 제도개선 방안과 부작용 대책 등을 논의하였기에
“줄속 도입”은 사실과 다름
 - * 외부전문가(관광, 카지노, 산업, 법률, 투자유치) 10명, 지경부·문화부로 구성
- 부실업체의 사업 참여는 사전심사 과정에서 심사기준을 엄밀히
설정하고 그에 따른 충실한 심사를 거치면 차단이 가능함
- 또한 미국, 싱가포르 등 주요국가들은 우리나라와 같이 외국인
전용 카지노 허가신청시 ‘특1급 호텔 등’ 수천억원의 先투자를
요구하지 않으므로 사전심사제도가 필요하지 않음
 - * 싱가포르와 미국 대부분의 州정부에서는 입찰절차에 의해 카지노 허가를
부여하므로 입찰심사가 사실상 ‘사전심사’ 역할을 수행

※ 관련 문의

지식경제부 산업물류투자팀 이홍열 팀 장 (02-2110-3878)
정민규 사무관 (02-2110-4945)